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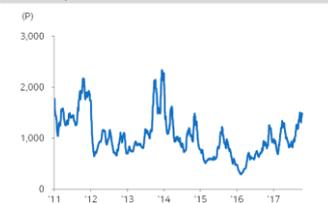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8,613.1	21.2	152,000	1.7	7.8	-9.8	9.8	54.7	123.7	0.8	0.8	1.3	0.6
현대로보틱스	7,166.1	20.5	440,000	-0.1	1.0	10.3	NA	4.8	5.5	0.9	0.8	19.4	15.8
현대일렉트릭	979.9	5.2	242,500	0.2	6.9	-13.5	NA	11.9	8.0	1.1	1.0	9.5	13.1
현대건설기계	1,515.0	9.6	381,500	1.2	16.1	11.5	NA	11.9	9.1	1.6	1.3	13.1	15.8
삼성중공업	4,602.0	18.4	11,800	0.9	11.3	-0.8	27.6	59.9	127.7	0.7	0.7	1.2	0.6
대우조선해양	NA	2.4	NA	NA	NA	NA	NA	NA	NA	NA	NA	17.6	9.1
현대미포조선	1,936.0	13.3	96,800	1.9	-0.4	-6.9	44.0	9.5	32.8	0.8	0.8	8.9	2.4
한진중공업	417.8	4.1	3,940	-1.5	-0.5	-6.2	17.1	-12.3	8.9	0.5	0.4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271.0	29.7	51,600	1.6	-0.2	-10.9	-10.1	9.6	9.1	1.4	1.3	15.9	14.6
두산벌크	3,709.2	24.5	37,000	-1.1	0.3	4.7	3.2	16.2	14.9	1.0	1.0	6.6	6.7
현대로템	1,474.8	28.1	17,350	0.3	-3.1	-12.2	-4.4	32.9	22.2	1.0	1.0	3.2	4.6
하이룩코리아	287.2	47.1	21,100	-0.9	1.4	-15.9	0.0	11.0	9.7	0.9	0.8	8.5	9.0
성광랜드	260.3	14.1	9,100	-2.8	-0.8	-10.8	2.7	29.4	16.9	0.6	0.5	1.9	3.2
태광	247.0	16.7	9,320	-1.2	-0.4	-7.3	12.4	34.9	19.2	0.6	0.6	1.6	2.9
두산중공업	1,985.5	9.8	18,650	1.9	8.1	-7.4	-31.4	30.0	11.2	0.7	0.6	2.6	5.6
두산인프라코어	1,908.9	11.2	9,200	6.7	10.6	12.6	4.3	10.8	9.1	1.0	0.9	8.8	9.8
두산엔진	266.9	4.4	3,840	-1.5	-5.8	-7.0	16.9	20.7	19.2	0.5	0.5	2.4	2.5
한국항공우주산업	4,649.6	20.8	47,700	0.0	0.7	-17.2	-28.8	32.7	18.9	3.1	2.8	8.9	15.1
한화테크윈	1,743.7	20.5	33,150	-2.4	-11.8	-17.5	-23.7	18.7	13.9	0.7	0.7	4.0	5.2
LIG넥스원	1,669.8	19.9	75,900	2.3	1.2	10.3	-5.7	16.9	16.2	2.3	2.1	15.3	13.8
태웅	322.1	4.1	16,100	-1.5	-8.3	-33.7	-28.3	41.6	14.2	NA	NA	1.2	3.5
동성화학	132.5	3.4	4,910	-2.4	2.5	-19.0	-14.6	NA	NA	NA	NA	NA	NA
한국카본	258.9	16.6	5,890	0.2	1.0	-4.2	-2.6	19.8	26.7	0.8	0.8	4.1	3.0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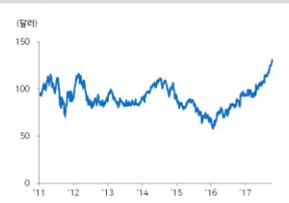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27** 1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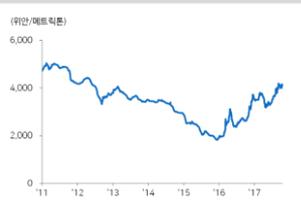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aterpillar(CommonStock): **+0.72** 130.71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24p, 중고선가 지수 90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4p, 중고선가 지수는 90p를 유지함. 지난주 신조선 시장은 특별한 계약이 없었음. 올해 지금까지 589척의 선박이 발주되며, 16년 전체 선박 발주 588척을 상회함. 금액 기준으로 17년 발주는 약 440억달러로 16년 전체 발주 약 369억달러를 19.6% 상회함. (Clarksons)

현대상선, 6936억원 유상증자 결정... "선박 · 터미널 확보"

현대상선은 6,936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선대 확장 및 터미널 확보,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 자금 사용계획은 시설자금으로 4,000억원, 운영자금으로 2,93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은 이번 증자로 대형 컨테이너선 확보와 거점 터미널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려 계획함. (EBN)

Roy Mosvold makes play for capesize newbuildings in China

노르웨이 선주 Roy Mosvold는 중국 Yangzijiang 조선소에서 Capesize 18만 DWT급 벌크선 2+2척을 인수할 계획임. 선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각 선박은 약 4,17천만달러로 예상된다. Mosvold는 Cargill 등 주요 업체와 계약을 맺은 후 선박 확보에 나섰고, 선박은 19년에서 20년까지 인도될 예정임. (TradeWinds)

조선업계, 인력 1년새 4만명 이탈...구직자도 대폭 감소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조선해양산업 종사자는 전년대비 3.5만명 감소함. 상반기 기준 조선사별로는 현대중공업 3.6만명으로 약 1.8만명 감소, 대우조선해양은 3만명으로 약 5천명 감소, 삼성중공업은 3.6만명으로 약 7천명 감소함. 종사자 급감은 조선사 인력감축으로 발생. (EBN)

Shipping high-yield debt at three year high

Clarksons에 따르면 고수익 채권 발행규모가 주식 발행규모의 약 3배에 달함. 고수익 채권 발행규모는 14년 이후 최고치로, 올해 발행된 고수익 채권은 약 44억달러인 반면 주식 발행은 15억달러로 알려짐. 대부분 채권은 무담보로 대출자에 편하며, 30억달러 이상 채권이 19년 만기로 재융자가 필요함. (TradeWinds)

CMA CGM upgraded at Standard & Poor's

컨테이너선사 CMA CGM은 신용평가사 S&P로부터 기업 신용등급은 B에서 B+로, 무담보 채권 등급은 CCC+에서 B-로 상향됨. 이번 상향은 운임 상승과 17년 호실적을 근거로 조정됨.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S&P는 17년과 18년에 예정된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공급에 의한 선박량 증가 우려도 언급함.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0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가로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10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0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